

대 중 화 문 고
중 한 대 역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金瓶梅 금병매 IV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대중화문고

중한대역

金瓶梅

금병매

IV



(明) 兰陵笑笑生 著

[韩] 赵诚出 译

난능소소생 지음

조성출(한국) 옮김

안의운, 최옥식 교역

外文出版社

외문출판사

《金瓶梅》写了中国 16 世纪一位暴发户的个人发迹史和家庭生活史。小说的主人公西门庆原本是一个开药材铺子的商人，他通过行贿来勾结官府，然后又倚靠官府包揽词讼，巧夺民财，迅速地积累财富，最后用金钱开道，登上了仕途。另一方面，他在家庭生活和 personal 生活上，又极度豪奢，纵欲无度，和众多的女子有淫乱关系。这使他的身体大大受到了伤害，最后暴病身亡。他原来聚敛的钱财，在他死后迅速地落入了他人之手。他那些漂亮的妻妾也分别有了新的归属。《金瓶梅》的出现，标志着中国古代的长篇小说从内容到形式都走向了成熟。

《금병매》는 중국 16세기 한 벼락부자의 입신 출세 과정과 가정 생활사를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서문경(西門慶)은 원래 약재가게를 경영하는 한 상인이었는데 뇌물을 써서 관청과 결탁하고 또 관청에 의거하여 소송을 독점하고 서민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손쉽게 재산을 긁어모았으며 나중에는 금전으로 길을 열어 벼슬길에 오른다. 한편 그는 가정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극도로 사치하고 육욕을 절제하지 못해 많은 여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그는 건강을 크게 해치고 마침내 급병에 걸려 죽고 만다. 따라서 그가 그토록 긁어 모은 금전과 재산은 그의 죽음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그의 어여쁜 처첩들은 뿔뿔이 남에게 넘어간다. 그가 살았을 때는 신변에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가 일단 죽고 말자 이 친구들은 앞을 다투어 속임수를 써가며 그의 재물을 탈취해간다.

《금병매》의 탄생은 중국 고대의 장편소설이 내용에서 형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숙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大中华文库》汉韩对照版书目

第一批 (10种)

《周易》	《老子》
《论语》	《孙子兵法》
《孟子》	《庄子》
《水浒传》	《西游记》
《三国演义》	《红楼梦》

第二批 (10种)

《诗经》	《荀子》
《楚辞》	《史记选》
《唐诗选》	《唐宋文选》
《西厢记》	《牡丹亭》
《金瓶梅》	《聊斋志异选》

第三批 (5种)

《宋词选》	《元曲选》
《天工开物》	《儒林外史》
《老残游记》	

绵延不绝、奔流入海的黄河，哺育了中华各族儿女，是中华民族的母亲河。图为黄河上游的壶口瀑布。

급이급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황하는 중화 민족의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다. 그림은 황하 상류의 호구 폭포이다.



国家出版基金项目
NATIONAL PUBLICATION FUND PROJECT

大中华文库

대중화문고

目 录

- 第五十二回
应伯爵山洞戏春娇
潘金莲花园调爱婿 1412
- 第五十三回
潘金莲惊散幽欢
吴月娘拜求子息 1456
- 第五十四回
应伯爵隔花戏金钏
任医官垂帐诊瓶儿 1476
- 第五十五回
西门庆两番庆寿旦
苗员外一诺送歌童 1500
- 第五十六回
西门庆捐金助朋友
常峙节得钞傲妻儿 1534
- 第五十七回
开缘簿千金喜舍
戏雕栏一笑回嗔 1554
- 第五十八回
潘金莲打狗伤人
孟玉楼周贫磨镜 1580
- 第五十九回
西门庆露阳惊爱月
李瓶儿睹物哭官哥 1622
- 第六十回
李瓶儿病缠死孽
西门庆官作生涯 1658
- 第六十一回
西门庆乘醉烧阴户
李瓶儿带病宴重阳 1672



차 례

제 52 회

응백작이 암자에서 계집을 희롱하고
반금련이 화원에서 사위와 사통하다 1413

제 53 회

반금련이 밀통을 하다가 놀라 달아나고
오월랑이 아들을 얻고자 비방을 구하다 1457

제 54 회

응백작이 꽃서리 너머로 금친을 희롱하고
임의관이 문발 너머로 이병아를 진맥하다 1477

제 55 회

서문경이 두 번 채태사의 생일을 축하하고
묘원외가 한 번 약속대로 가동을 보내오다 1501

제 56 회

서문경이 금전으로 친구를 도와 주고
상치절이 돈을 얻어 아내에게 뽐내다 1535

제 57 회

권선문에 감복하여 천금을 시주하고
낭군님의 놀림에 웃으며 나무라다 1555

제 58 회

반금련이 개와 추국을 때려주고
맹옥루가 거울담이를 구제해 주다 1581

제 59 회

서문경이 '연장' 을 드러내 애월을 놀래고
이병아가 관가의 죽음을 원통해 하다 1623

제 60 회

아병아가 상심끝에 병이 도지고
서문경이 새로 포목점을 차리다 1659

제 61 회

서문경이 취중에 여인들을 우롱하고
이병아가 병중에 명절잔치에 나가다 1673



目 录

- 第六十二回
潘道士法遣黄巾士
西门庆大哭李瓶儿 1710
- 第六十三回
韩画士传真作遗爱
西门庆观戏动深悲 1760
- 第六十四回
玉箫跪受三章约
书童私挂一帆风 1784
- 第六十五回
愿同穴一时丧礼盛
守孤灵半夜口脂香 1802
- 第六十六回
翟管家寄书致贖
黄真人发牒荐亡 1830
- 第六十七回
西门庆书房赏雪
李瓶儿梦诉幽情 1846



차 례

제 62 회

반도사가 푸닥거리로 황견장사를 부리고
서문경이 이병아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 1711

제 63 회

한선생이 와서 이병아의 화상을 그리고
서문경이 희문을 보고 이병아를 못 잇다 1761

제 64 회

옥소가 무릎 꿇고 금련에게 사정하고
서동이 재물을 훔쳐 줄행랑을 놓다 1785

제 65 회

동혈을 위하여 후한 장례를 치르고
고혼을 지키다 야밤에 재미를 보다 1803

제 66 회

책집사가 편지와 향전을 보내오고
황진인이 기도로 망자를 제도하다 1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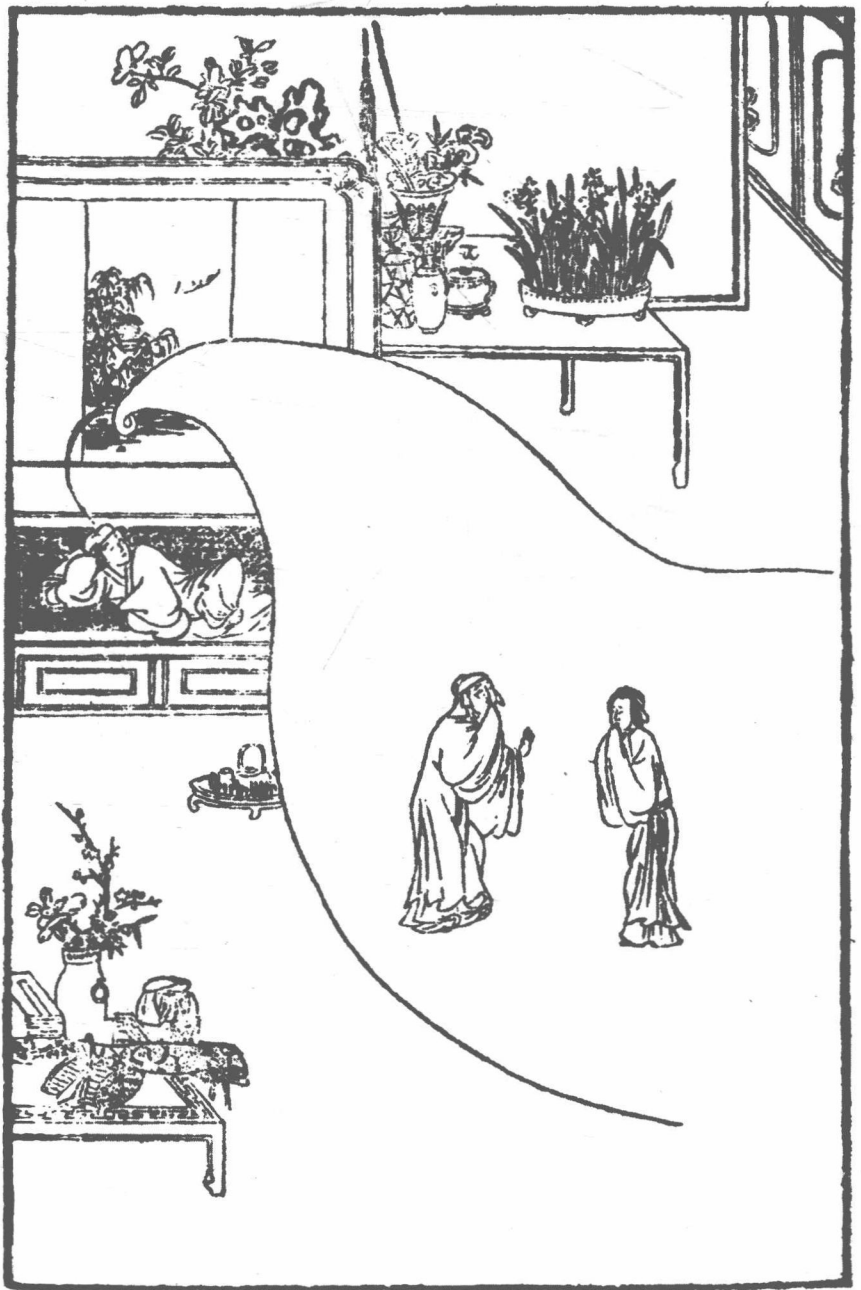
제 67 회

서문경이 서재에서 눈 구경을 하고
이병아가 꿈에 모습을 드러내다 1847

주 해

1893







第五十二回

应伯爵山洞戏春娇 潘金莲花园调爱婿

诗曰：

青楼晓日珠帘映，红粉春妆宝镜催。
已厌交欢怜旧枕，相将游戏绕池台。
坐时衣带萦纤草，行处裙裾扫落梅。
更道明朝不当作，相期共逗管弦来。

话说那日西门庆在夏提刑家吃酒，见宋巡按送礼，他心中十分欢喜。夏提刑亦敬重不同往日，拦门劝酒，吃至三更天气才放回家。潘金莲又早向灯下除去冠儿，设放衾枕，薰香澡牝等候。西门庆进门，接着，见他酒带半醉，连忙替他脱衣裳。春梅点茶吃了，打发上床歇息。见妇人脱得光赤条身子，坐着床沿，低垂着头，将那白生生腿儿横抱膝上缠脚，换了双大红平底睡鞋儿。西门庆一见，淫心辄起^①，一手搂过妇人在怀里，因说：“你达今日要和你干个后庭花儿，你肯不肯？”那妇人瞅了一眼，说道：“好个没廉耻冤家，你成日和书童儿小厮干的不值了，又缠起我来了，你和那奴才干去不是！”西门庆笑道：“怪小油嘴儿，罢么，你若依了我，又稀罕小厮做甚么。你不知你达心里，好的是这桩儿^②。”妇人被他再三缠不过^③。这西门庆

① 下册40字。

② 下册10字。

③ 下册116字。

제 52 회

응백작이 암자에서 계집을 희롱하고
반금련이 화원에서 사위와 사통하다

(머리시 삭제)

서문경이 하제형의 집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급히 자기 방으로 온 금련은, 춘매더러 침상에 잠자리를 펴도록 이르고, 자기는 몸에 향을 뿌리고 그곳을 씻고 서문경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서문경이 새벽녘 약속대로 방안에 들어섰다. 거나하게 취하여 비틀걸음을 걷는다.

금련은 얼른 다가가서 옷을 벗겨 주며, 춘매더러 차를 내오게 했다. 서문경이 찻잔을 물리자 금련은 옷을 벗고 침상에 걸터앉아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족끈을 감았다. 서문경은 물끄러미 세 치가 뒹직한 붉은 잠자리 신발을 바라보았다. 한참 금련의 예쁜 발을 바라보노라니 서문경의 그것이 슬그머니 고개를 추켜들었다. 그는 금련에게 문제의 일곱 가지 연장을 꺼내게 했다. 금련은 얼른 이불 밑을 더듬어 문제의 연장을 꺼내 주었다. 서문경은 은탁자를 달고 나서 한 손으로 금련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네 아빠는 오늘 뒤뜰 꽃(後庭花)을 소망하시는데, 응낙하겠어?”

금련은 흘끔 서문경을 노려보며,

“뻔뻔스러운 악당 같으니라고. 날이면 날마다 서동 녀석을 데리고 지랄을 치면서도 부족하여 나한테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 녀석과 한판 놀고 왔는지 알게 뭐야.”

“말이 많아. 네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내가 왜 그런 사내놈을 귀여워하겠어. 모르는군. 그것이라야만 쉽게 끝장이 나는데…….”

끈기있게 사내가 지분거리자 계집은 더 이상 뿌리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못 참을 것 같지만, 아무튼 해 볼 테니 거북대가리에 썩은 유황권은 빼세요.”

서문경은 얼른 데는 벗기고 은탁자만을 남겼다. 그리고는 그녀더러 말처럼 침대 위에 엎드려 엉덩이를 하늘로 솟게 하라고 시킨 다음 입안의 타액을 거북대가리에 바르고 오가며 적시면서 쑤셔넣는데, 창이 워낙 든든하여





叫道：“好心肝，你叫着达达，不妨事，到明日买一套好颜色妆花纱衣服与你穿。”妇人道：“那衣服倒也有在，我昨日见李桂姐穿的那玉色线掐羊皮挑的金抽银黄银条纱裙子，倒好看，说是里边买的。他每都有，只我没这裙子，倒不知多少银子，你倒买一条我穿罢了。”西门庆道：“不打紧，我到明日替你买^①。”一宿晚景题过。

次日，西门庆早晨到衙门中回来，有安主事、黄主事那里差人来下请书，二十二日在砖厂刘太监庄上设席，请早去。西门庆打发来人去了，从上房吃了粥，正出厅来，只见篦头的小周儿扒倒地下磕头。西门庆道：“你来的正好，我正要篦篦头哩。”于是走到翡翠轩小卷棚内，坐在一张凉椅儿上，除了巾帨，打开头发。小周儿铺下梳篦家活，与他篦头栉发。观其泥

^① 下删265字。



잠깐 사이에 그 속으로 거북대가리가 감춰졌다. 그녀는 아래에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참아내는데, 입으로는 손수건을 깨물고 있었다.

“아빠 서두르지 말아요. 이건 앞과 달라 안이 터질 지경이고, 마치 뜬을 뜨는 것 같이 따잡고 못 견디게 아파요.”

서문경이 능글거렸다.

“아이 착해. 아빠가 쉬 예쁜 옷을 한 벌 해 주지.”

“그보다도 어제 이계저가 입고 있는 것을 봤는데, 옥색 바탕에 배를 수 놓고 금과 은줄이 든 비단 치마가 무척 곱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 사 주세요. 네?”

“응, 알았어. 곧 사 주지.”

이렇게 대답하면서 서문경은 위에서 활동하는데, 뿌리를 잠갔다 머리를 내놓기도 하면서, 나오는 부분은 적었지만 들여보내는 부분은 많았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흘기며 소리쳤다.

“아빠, 여기는 오프라든 데라 남은 아파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움직여요? 제발, 어서 그만두세요.”

서문경은 그녀의 말을 아예 귓등으로 듣고, 오히려 그의 허벅지를 잡고 드나드는 꼴을 구경하면서 소리쳤다.

“요 다섯째야. 네가 갈보가 아니냐? 떠들썩하게 아빠라 불렀지? 어디 네 아빠의 그것을 일러서 나오게 하렴.”

그녀는 정말 밑에서 눈을 계슴츠레하게 뜨고 피꼴새의 목청을 본받는데, 가는 허리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서 향기로운 몸뚱이를 다가대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흑흑 흐느낌소리를 냈다. 참으로 이루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밤일에 대해선 더 구구히 늘어놓지 않겠다.

이튿날 서문경이 제형소에 갔다 오니 안주사와 황주사한테서 초대장이 와 있었다.

22일에 벽돌 공장을 하는 유태감 장원에서 주연을 베풀 테니 아침 일찍 와 달라는 것이었다.

서문경은 심부름꾼에게 회답을 주어 돌려보내고,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사랑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이발사 소주가 가까이 와서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응, 마침 잘 왔다. 그렇잖아도 너를 불러서 머리 손질을 해 달라고 하려 든 참이다.”

서문경은 이발사를 데리고 뜰 안 비취현으로 가서 두건을 벗고 머리를 풀었다. 소주는 익숙한 솜씨로 머리를 빗어 주고 때를 빼고, 새치를



垢，辨其风雪，跪下讨赏钱，说：“老爹今岁必有大迁转，发上气色甚旺。”西门庆大喜。篋了头，又叫他取耳，捏捏身上。他有滚身上一弄儿家活，到处都与西门庆滚捏过，又行导引之法，把西门庆弄的浑身通泰。赏了他五钱银子，教他吃了饭，伺候与哥儿剃头。西门庆就在书房内，倒在大理石床上就睡着了。

那日杨姑娘起身，王姑子与薛姑子要家去。吴月娘将他原来的盒子都装了些蒸酥茶食，打发起身。两个姑子，每人又是五钱银子；两个小姑子，与了他两匹小布儿，管待出门。薛姑子又嘱咐月娘：“到壬子日把那药吃了，管情就有喜事。”月娘道：“薛爷，你这一去，八月里到我生日，好来走走，我这里盼你哩。”薛姑子合掌问讯道：“打搅菩萨这里。我到那日已定来。”于是作辞，月娘众人都送到大门首。月娘与大妗子回后边去了，只有玉楼、金莲、瓶儿、西门大姐、李桂姐抱着官哥儿，来花园里游玩。李瓶儿道：“桂姐，你递过来，等我抱罢。”桂姐道：“六娘，不妨事，我心里要抱抱哥子。”玉楼道：“桂姐，你还没到你爹新收拾书房里瞧瞧哩。”到花园内，金莲见紫薇花开得烂熳，摘了两朵与桂姐戴。于是顺着松墙儿到翡翠轩，见里面摆设的床帐屏几，书画琴棋，极其潇洒。床上绡帐银钩，冰簟珊枕。西门庆倒在床上，睡思正浓。旁边流金小篆，



뽑았다.

머리 손질이 끝나자 서문경은 소주에게 화대를 주었다.

“나리께서는 올해 반드시 승진하시겠습니다. 머리의 윤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소주의 이 말을 들은 서문경은 기쁜 낯으로 다시 귀 소제와 안마를 시켰다.

이발사는 몸뚱이 위를 굴릴 수 있는 안마 연장으로 서문경의 전신을 고무 안마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도록 손을 썼기 때문에 서문경은 온 몸이 확 풀렸다. 그러나 이발사에게 은 5전의 화대를 주고 식사를 하게 한 다음 관가의 머리를 깎도록 대기시켰다.

이렇게 머리를 빗고 몸을 풀고 난 서문경은 거뜬한 기분으로 서재에 가서 대리석 침상 위에 누워 단잠을 잤다.

이날 양노파가 귀가했고, 왕비구니와 설비구니도 암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오월랑은 두 비구니가 가지고 온 찬함에 조청으로 소를 넣은 찢과자를 담아 주고 그밖에 두 비구니에게 각각 5전씩을 주었다. 일어서면서 설비구니는 오월랑에게 임자일(壬子日)에 그 약을 자시면 반드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자, 오월랑은 설비구니에게 8월의 자기 생일에는 꼭 와 달라고 했다.

설비구니는 함장을 하며,

“폐가 많았습니다. 그날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작별을 고했다. 오월랑들은 그들을 바깥대문까지 따라 나가서 전송했다. 그리고 오월랑과 오대구의 부인은 안으로 들어갔으나 맹옥루·반금련·이병아·진실·이계저 들은 은실로 지은 흰 비단 저고리에 노랑 바탕에 금실로 수를 놓은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은실로 묶은 다리에다 취수상운(翠水祥雲)의 비녀와 금실로 만든 비녀를 꽂고, 자수정 귀걸이에 붉은빛 신발 차림으로 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병아가 관가를 안고 있는 이계저를 보고 말한다.

“이리 줘요. 내가 안을 테니.”

“괜찮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안아 보고 싶어요.”

그러자 맹옥루가 계저더러 말한다.

“계저는 아직 나라의 새로 꾸민 서재를 구경해 보지 못했지? 한번 가 볼 테야?”

뜰 안으로 들어서니 백일홍이 만발하고 있었다. 금련은 두 송이를 따서 이계저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이윽고 그들은 비취헌으로 몰려 갔다. 그러나 서문경은 침상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곁에 놓여 있는 금무늬가 든



焚着一缕龙涎。绿窗半掩，窗外芭蕉低映。潘金莲且在桌上掀弄他的香盒儿，玉楼和李瓶儿都坐在椅儿上。西门庆忽翻过身来，看见众妇人都在屋里，便道：“你每来做甚么？”金莲道：“桂姐要看看你的书房，俺每引他来瞧瞧。”那西门庆见他抱着官哥儿，又引逗了一回。忽见画童来说：“应二爹来了。”众妇人都乱走不迭，往李瓶儿那边去了。应伯爵走到松墙边，看见桂姐抱着官哥儿，便道：“好呀，李桂姐在这里。”故意问道：“你几时来？”那桂姐走了说道：“罢么，怪花子！又不关你事，问怎的？”伯爵道：“好小淫妇儿，不关我事，也罢，你且与我个嘴着。”于是搂过来就要亲嘴。被桂姐用手只一推，骂道：“贼不得人意怪攘刀子，若不是怕谎了哥子，我这一扇把子打的你——”西门庆走出来看见，说道：“怪狗才，看谎了孩儿。”因教书童：“你抱哥儿送与你六娘去。”那书童连忙接过来。奶子如意儿正在松墙拐角边等候，接的去了。伯爵和桂姐两个站着说话，问：“你的事怎样了？”桂姐道：“多亏爹这里可怜见，差保哥替我往东京说去了。”伯爵道：“好，好，也罢了。如此你放心些。”说毕，桂姐就往后边去了。伯爵道：“怪小淫妇儿，你过来，我还和你说话。”桂姐道：“我走走就来。”于是也往李瓶儿这边来了。

伯爵与西门庆才唱喏坐的，西门庆道：“昨日我在夏龙溪家吃酒，大巡宋道长那里差人送礼，送了一口鲜猪。我恐怕放不的，今早旋叫厨子来卸开，用椒料连猪头烧了。你休去，如